

파견기간	2025-1학기	교환학생 귀국 보고서	학 번	2022-17037
파견국가	미국		소 속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파견대학	Purdue University		성 명	이윤서

I. 교환 프로그램 참가 동기

항상 꿈꿔왔던 대학에서의 2년 6개월간의 학부 생활은 제게 소중한 인연들과 값진 경험을 선물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3학년을 맞은 저는 학업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지쳐있었고, 어느 순간 열심히 살아야 하는 동력을 잃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시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교환학생을 가는 것을 보기도 했고, 한 번쯤은 해외에서 꼭 공부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휴식 및 새로운 경험을 위해 교환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구자를 꿈꾸는 기계공학부 학생으로서 미국 대학원 진학도 고려하고 있었기에 큰 고민 없이 지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II.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1. 파견대학/지역 선정 이유

우선, 제가 파견대학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공과대학이 좋은 학교인가?”이었습니다. 더 넓은 세상에서 공부해보고자 교환 프로그램에 지원한 것이었기에 제가 속한 기계공학부의 순위를 고려하여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유럽에 있는 대학들과 미국에 있는 대학들 모두 저에게 매력적이었지만, 영어가 아닌 언어로 수업을 듣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 대학으로 대학원 진학을 목표하고 있기에 미리 미국에서의 학업과 생활을 경험해보고자 미국 대학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퍼듀대학교를 선택한 데에는 치안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거주 경험이 있는 지인을 통해 물어봤을 때 미국 내에서 정말 안전한 지역이라는 것을 듣고 이곳이라면 저의 첫 해외 홀로서기를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또한, 평소 기계공학 전공 수업을 공부할 때 퍼듀대학교를 많이 들어봤기에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해당 학교를 1순위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 파견대학/지역 특징

퍼듀대학교는 인디애나(Indiana)주의 웨스트 라피엣(West Lafayette)에 위치합니다. 사실 인디애나 주는 옥수수밭과 콩밭이 많고, 놀거리도 그리 많지 않은 심심한 주입니다. 그중에서도 퍼듀가 위치한 웨스트 라피엣은 대학도시로, 모든 상권이 퍼듀 중심으로 구성된 작은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인프라가 발달하지 않은 편이긴 하나, 저는 주변 친구들의 도움으로 큰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웨스트 라피엣의 경우 거주하는 사람이 대부분 퍼듀 학생 또는 교수 가족이기에 미국 내에서 가장 좋은 치안을 자랑합니다. 저 같은 경우 캠퍼스 내에 있는 기숙사에 살았는데, 캠퍼스 내에서는 밤늦게 걸어 다녀도 될 정도로 정말 안전했습니다.

더불어, 퍼듀대학교는 공과대학으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미국의 우주 비행사 닐 암스트롱을 배출한 학교로, 특히 항공우주공학과 비행 전공의 경우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합니다. 캠퍼스를 걸어 다니다 보면 비행 전공 학생들이 작은 비행기로 훈련받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학생들이 매우 많은 편으로 한국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고, 다양한 동아리나 단체를 통해 한국 학생들과 쉽게 어울리고 친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III. 출국 전 준비 사항

1. 숙소 지원 방법

숙소의 경우 크게 기숙사와 자취,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자취방의 경우 보통 1년 단위로 집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현지 지역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교환학생은 대부분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를 이용하게 됩니다.

기숙사는 학기 시작 전 미리 신청해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2024/10/22 퍼듀 합격 메일을 받았고, 이후 2024/12/1까지 기숙사 지원을 완료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퍼듀대학교에 배정받은 이후에 많은 이메일을 받게 되실 텐데, 그중 기숙사 신청과 관련한 메일도 포함되어 있으니 꼼꼼하게 읽으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방의 경우 건물에 따라 에어컨 유무, 룸메이트 인원, 개인 화장실 유무, 비용 등이 모두 상이합니다. 이에 기숙사 포털을 통해 미리 방들의 특징을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신청하게 되는데요. 안내받을 때는 선착순이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상 우선순위가 잘 반영되지 않는 랜덤한 배정이기에 우선순위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다만, 현지 사정상 학생 수에 비해 기숙사 방이 부족하여 너무 늦게 지원하면 기숙사 거주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의 생활 습관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성향이 비슷한 학생끼리 같이 방을 쓸 수 있게 해주며, 이미 알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함께 방을 쓰게 배려해줍니다. 저의 경우 서울대학교에서 함께 파견 가는 학우와 미리 연락을 하여 한 학기 동안 그 친구와 함께 편하게 생활했습니다.

2. 파견 대학 지불 비용(student fee, tuition fee, 기숙사 비용 등)

교환학생으로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는 기숙사 비용과 학식 비용이 있습니다. 등록금의 경우 서울대학교에 해당 학기 등록금을 내면 추가로 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기숙사 신청 시 학식의 역할을 하는 Meal Plan을 함께 신청하게 되는데요. 7-Track, 10-Track, 14-Track, Unlimited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한 주를 기준으로 학식을 먹을 수 있는 횟수를 나타내며, 각 plan에 따라 가격이 상이합니다. Meal Plan의 경우 낮은 트랙으로 신청한 후 학식을 몇 번 먹어보고 더 높은 트랙으로 바꿀 수 있으니 처음에는 낮은 트랙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Hawkins Hall 2인실에서 거주하였고, Meal Plan은 7-Track을 신청하여 총 4676달러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거나 특별 비용이 필요한 수업을 듣게 되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봄학기 오리엔테이션 비용으로 150달러, 오케스트라 수업 추가 비용으로 120달러를 지불하였습니다. 비싸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퍼듀대학교 등록금이 서울대학교 등록금으로 대체되는 만큼 현지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비용은 개강일이 마감 기한이니 늦지 않게 지불하시길 바랍니다.

3. 기타 유용한 정보

출국 전 가장 신경 쓰였던 일은 예방접종이었습니다. 미국 대학들이 대부분 비슷한 요구조건을 가진 것으로 들었는데, 미국 대학교에서 생활하기 위해 꼭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 및 검사를 안내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예방접종은 한국인이라면 이미 맞은 것도 많지만, 한국에서는 흔하지 않은 예방접종도 한두 개 포함되어 있어 학기 중에 시간을 내어 맞느라 꽤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해당 백신을 보유한 병원도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기에, 예방접종 관련 메일을 받은 후 늦지 않게 병원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 안내받을 때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해서 겁을 먹었는데, 사실 너무 스트레스받진 않으셔도 됩니다. 예방접종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다음 학기 수강 신청에 제한이 생기는 것인데, 퍼듀대학교는 한 학기 파견만 가능하기에 혹여 한국에서 예방접종을 해결하지 못하

고 가시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학교 보건소 PUSH에서 해결하지 못한 예방접종을 맞을 수도 있으니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IV. 학업

1. 수강신청 방법

퍼듀의 수강신청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됩니다. 먼저 미리 듣고 싶은 수업을 신청하는 Course Request Form을 제출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2024/11/14까지 해당 Form을 제출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MySNU 포털과 같은 역할을 하는 MyPurdue의 Schedule of Classes 메뉴에서 해당 학기에 개설되는 수업과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서울대학교에서 장바구니를 담듯 원하는 수업을 고르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강의를 고르는 과정이 헛갈린다면 각자 배정된 Academic Advisor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Advisor가 각자의 전공에 맞게 적합한 수업을 잘 추천해주기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메일을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Course Request Form을 제출한 후에는 학생들의 학년, 수강학점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수업을 배정합니다. 확정된 시간표는 2024/11/26부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은 가장 후순위기 때문에 신청한 수업을 모두 배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저 역시 12 credit을 신청하였지만, 처음 배정받은 수업은 6 credit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정 후 2024/12/2부터 빈자리가 생길 때마다 다른 수업을 신청할 수 있었고, 매번 확인할 필요 없이 Wait List를 걸어놓으면 다른 학생이 취소할 때마다 자동으로 대기 명단에 있는 학생을 해당 수업으로 등록시켜줍니다. 이 시기부터 개강 전까지 변동이 정말 많이 생기기 때문에, 틈날 때마다 수강 신청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원하는 수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강 후에도 첫 2주 동안은 빈자리가 생길 때마다 수강 변경을 할 수 있고, 드랍기한도 널널하니 다양한 수업을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저는 전공 수업인 ME 수업 두 개, 타과 수업 두 개, 그리고 오케스트라 수업 하나를 수강하여 총 14 credit을 수강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큰 계획 없이 신청하여 학점 인정을 많이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는 졸업 계획상 교환 학기 학점 인정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 듣고 싶은 수업을 들었지만, 만약 학점 인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강의계획서와 서울대학교 학점 인정 규정을 잘 살펴보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가 들은 수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ME 41300 Noise Control (3 credit)

해당 수업은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의 기초음향공학 수업과 동일한 수업입니다. 음파의 생성, 투과, 흡수, 방사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포함하여 Active Noise Control, Muffler 등 실생활에서의 음향공학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수님께서 항상 열정적으로 수업해주시고 다양한 자료로 이해를 도와주셔서 정말 즐겁게 들었던 수업이었습니다. 시험은 중간고사 한번, 기말고사 한 번으로 구성되었는데 전년도 족보와 해설을 모두 올려주시고 시험도 족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비교적 쉽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 ME 44400 Computer-Aided Design & Prototyping (3 credit)

해당 수업은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의 창의공학설계와 통합기계설계 및 해석을 합친 느낌의 수업입니다. CAD 설계 및 다양한 액추에이터에 대해 심도 있게 배우고, 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 등을 활용한 무선통신 및 이를 모두 통합한 제품 개발에 대해 배우는 수업입니다. 또한, 이렇게 배운 내용을 토대로 중간 과제로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로봇을 만들고, 기말 과제로는 팀별로 원하는 제품

을 디자인하여 설계 및 제작까지 하는 실습 중심의 수업이었습니다. 학부 1학년 때 창의공학설계를 배우며 많은 내용을 숙지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수업의 경우 4학년 수업인 만큼 훨씬 자세하게 해당 내용을 배웠고, 준비된 주제나 재료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들의 힘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과 그룹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지나고 나니 가장 즐겁게 수강했던 수업이었습니다.

- EAPS 10600 Geosciences Cinema (3 credit)

해당 수업은 재난 영화를 보며 자연재해에 대해 배우는 가벼운 수업입니다. 지구과학 전공 소속 수업이긴 하나 난이도가 낮아 사실상 교양 수업이며, 로드도 매우 적어 교환학생으로 가볍게 수강하기 좋은 수업입니다. 교수님께서 강의력도 좋으시고, 가끔 재밌는 실험도 보여주시는 정말 미국다운 수업이니 시간만 맞으신다면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MGMT 30400 Introduction to Financial Management (3 credit)

해당 수업은 재무 관리에 대해 배우는 강의입니다. 항상 경영학과 수업을 듣고 싶었는데, 학점에 연연하지 않고 가볍게 들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수강하였습니다. 신입 교수님이라 강의력이 뛰어나진 않으셨지만, 수업 자료나 시험 대비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 BAND 11100 Symphony Orchestra (2 credit)

저는 어릴 때부터 취미로 바이올린을 연주해왔고, 서울대학교에서도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열심히 활동해왔습니다. 그래서 교환학생을 지원할 때 가장 하고 싶었던 활동 중 하나가 바로 현지 오케스트라였는데요. 마침 퍼듀대학교에 오케스트라 수업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한국에서 미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오디션을 보고 해당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해당 수업 수강 시 학교에서 악기를 무상으로 빌려주기에 따로 악기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미리 오디션을 봐야 오케스트라에 배정받을 수 있기에 해당 수업을 수강하고 싶다면 퍼듀 합격을 통보받은 직후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오디션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10월경 온라인으로 오디션을 진행하였고, 현지 도착 후 학교에서 악기를 빌려 학기 중 공연도 두 번 하며 정말 즐겁게 활동하였습니다.

3. 학습 방법

저의 경우 미국 대학과 한국 대학의 수업 차이가 크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도 기계공학부 수업의 절반은 영어강의로 진행되었고, 한국어 강의이더라도 영문 교과서로 학습하였기에 퍼듀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 대학 강의의 좋은 점은 Office Hour 제도가 매우 잘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업 내용을 공부하다가, 혹은 과제를 하다가 의문이 생겼을 때 교수님 혹은 조교에게 찾아가면 정말 친절하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에 이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수업을 따라가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정말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외국어 습득 요령

저의 경우 어릴 적 미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어 영어로 소통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영어로 대화하지 않은 기간이 너무 길었기에 처음 친구들을 만나 대화하니 영어가 잘 들리지 않아 당황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퍼듀대학교는 워낙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많기에 상대방의 영어 실력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무 큰 부담을 갖지 마시고 천천히 들리는 만큼 들

으며 지나다 보면 어느새 영어가 많이 늘어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V. 생활

1. 가져가면 좋은 물품

출국할 때 짐을 최소화하는 것이 편해서 저는 대부분 Amazon이나 Meijer, Target, Walmart 등 현지 마트에서 생활 물품을 구매하여 생활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물품은 가져가는 것이 좋은데요. 저는 평소 렌즈를 착용하여 9개월 치 렌즈를 미리 준비해 왔고,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안경과 스페어 안경을 맞춰 왔습니다. 또한, 본인이 평소 사용하는 화장품이 있다면 미국 제품은 한국에 비해 다양하지 않으니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옷이나 음식, 침구류 등은 한국에서 가져오셔도, 현지에서 구매하셔도 상관없는데, 가격이나 짐의 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현지 물가 수준

현지 물가는 한국에 비해서는 비싼 편이나, 미국 내에서는 싼 편입니다. 저는 환율이 가장 비쌀 때 파견을 나온지라 물가가 비싸다고 느껴지긴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끼 외식 비용은 인당 15-20달러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 스타벅스 커피는 5-6달러 정도입니다. 환율을 고려하면 상당히 비싼 금액이라 나중에는 돈을 아끼기 위해 커피는 직접 타 마시고, 요리를 자주 해서 먹기도 했습니다.

3. 식사 및 편의시설 (식당, 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

3.1 식당

캠퍼스 근처에 꽤 다양한 식당이 있습니다. 아래는 캠퍼스 근처 웨스트 라피엣 지역에 있는 식당들입니다.

중식 - *Red Wok(마라탕), Taste, Peppercorn*

일식 - *Strings, Sakanaya*

한식 - *Kimchi, Maru Sushi, Gaza&Xin Korean BBQ*

기타 - *Chipotle(멕시칸), Green Leaf(쌀국수), Taste of India(인도 음식), McDonalds, Raising Canes(치킨)*

또한, 강 건너 라피엣에도 맛있는 식당들이 많았는데요. 가끔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친구들이랑 종종 방문하여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Yatagarasu(일식), Nom Nom Tacos(멕시칸), Tsunami Sushi(한식), East End Grill(양식), Bru Burger(양식)

이외에도 Uber Eats나 Door Dash라는 배달 앱을 통해 종종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도 했고, *Weee!* 라는 아시안 식료품 구매 앱을 통해 재료를 구매해 요리해서 먹기도 했습니다.

3.2 의료

미국은 의료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기에 사실 아프지 않은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의 경우 웬만하면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한국에서 상비약을 넉넉하게 준비해갔습니다. 현지에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다면 캠퍼스 근처 Target이나 CVS에서 기본적인 상비약은 모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보건소의 역할을 하는 PUSH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기본적인 진료는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한 번도 이용하지는 않았는데, 현지 친구들의 경험을 듣자면 예약이 쉽지는 않아 미리 알아보고 가셔야 할 듯합니다. 만약 보건소 진료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면, 라피엣에 대학병원도 있습니다. 한국에 비해 금액이 매우 비싸긴 하겠지만, 정말 급할 때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3 은행

현지에서 한국의 트래블월렛이나 트래블로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학교와 행정적인 처리를 할 때 현지 통장이 없으면 매우 불편하기에 계좌를 하나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학생은 캠퍼스 근처에 있는 Chase 은행에서 학생 계좌를 만듭니다. 저 역시 개강 일주일 전에 미리 학교에 도착하여 바로 계좌 및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계좌에 넣을 돈은 미리 현금으로 환전해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지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에, 환율 상황을 고려하여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출국 직전 환율 상황이 악화되었는데, 미리 준비해둔 덕에 큰 문제 없이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계좌개설과 동시에 애플페이는 사용하실 수 있고, 함께 만든 Debit Card는 일주일 정도 후에 배송됩니다. 저는 아이폰 사용자이기도 하고, Walmart, Sam's Club과 같은 일부 마트를 제외한 모든 곳은 애플페이가 가능했기에 사실 카드를 쓸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생활하면서 애플페이나 Debit Card에 문제가 생긴 적은 없었지만, 혹시 몰라 한국에서 트래블월렛 카드를 만들어왔습니다. 한 번도 쓸 일은 없었으나, 혹시 모르니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하나 정도는 한국에서 들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4 교통

퍼듀대학교로 출국하실 때 아마 대부분 시카고 오헤어 공항을 이용하게 되실 것입니다. 인천 공항에서 출발하는 직항이 있기에 비행 자체는 큰 불편 없이 왔습니다. 다만 퍼듀대학교는 시카고 공항에서 차로 약 2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저의 경우 출국할 때 아버지와 동행하여 공항에서 렌트 후 운전해서 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건상 렌트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도 많기에 학생들은 대부분 오헤어 공항-퍼듀 직항 셔틀을 이용합니다. 셔틀은 크게 두 종류, Reindeer Shuttle과 Lafayette Limo가 있습니다. 두 셔틀 모두 경로는 같고 운영시간과 가격이 상이합니다. 두 셔틀 모두 알아보신 후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차가 없으면 정말 불편하지만, 짧은 기간 머무르는 것이기에 대부분 차 없이 생활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는 버스와 우버 정도가 있습니다. 버스는 라피엣과 웨스트 라피엣 지역을 커버하는 CityBus가 있습니다. 학기 중 퍼듀 학생에게는 이 버스가 무료로 제공되니 학교 홈페이지에서 프로모션 코드를 잘 확인하시고 꼭 무료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버스 노선은 꽤 많으며, 학교에서 거리가 있는 Walmart나 Downtown Lafayette 지역도 대부분 갈 수 있어 유용하게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의 교내 순환 셔틀처럼 캠퍼스만 돌아주는 버스도 있는데, 퍼듀의 캠퍼스도 서울대만큼 크기 때문에 수업과 수업 사이에 이동할 때 이 셔틀을 애용하였습니다. 다만 버스의 배차간격도 30분~1시간 정도로 꽤 길고, 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우버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3.5 통신

한국 전화번호로 해외 로밍을 진행해도 생활할 수 있긴 하지만, 현지 번호가 없으면 이래저래 불편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저의 경우 Mint Mobile이라는 저가 통신사를 이용하여 한국 USIM과 함께 미국 ESIM을 설치하여 Dual Sim으로 생활하였습니다. 한국 번호로 통신비용이 계속 나가는 것이 아깝지만, 아예 중단하게 되면 중간중간 한국 번호로 인증받을 일이 생겼을 때 큰 불편함을 겪을 수 있기에 저가 요금제로 바꾸고 출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학교 및 여가 생활 (동아리, 여행 등)

4.1 동아리

퍼듀대학교에는 정말 많은 동아리가 있습니다. BoilerLink라는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퍼듀대학교의 모든 동아리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운동동아리, 학술동아리 등 정말 다양한 동아리가 있습니다. 저는 ASME라고 하는 기계공학부 동아리에 가입하여 골드버그 장치 대회에 참가하는 등 정말 즐겁게

지냈습니다. 현지 학생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고,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으니 여유가 되신다면 동아리 하나 정도는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2 여행

저는 학기 중에는 총 3번 정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주말이나 휴일을 활용하여 Chicago, Indianapolis로 한 번씩 짧게 여행을 다녀왔고, 봄학기의 경우 3월경 일주일의 Spring Break이 있어 이 기간을 활용하여 친구와 함께 Florida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교통이나 숙박 등 비용이 많이 들기는 했으나, 너무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고 왔습니다. 가을학기 역시 일주일의 Thanksgiving Break이 있으니, 이 기간을 활용하여 한국에서 가기 어려운 미국의 주요 관광지 중 한 곳은 꼭 여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저는 방학에도 이곳에 머물며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학인지라 주말에 여유가 생겨 연구실 분들과 함께 Indiana Dunes, Chicago 등을 여행하고, Kentucky에 있는 에드워드 드리 셰프의 식당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차가 있는 주변 친구들의 도움으로 비교적 편하게 여행을 다녔는데요, 차가 없어도 Chicago나 Indianapolis의 경우 셔틀이나 버스가 잘 마련되어 있어 쉽게 여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안전 관련 유의사항

퍼듀대학교는 매우 안전한 편이긴 하나, 그래도 미국이기에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웨스트 라피엣의 경우 한국만큼 안전하다고 느껴져서 정말 편하게 생활하셔도 되지만, 강 건너 라피엣의 경우 다양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고, 그에 따른 마약 문제나 총기 문제도 가끔 발생하기에 해당 지역은 밤늦게는 다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버스나 우버 등은 밤에 이용해도 문제없을 만큼 안전하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6. 기타 유용한 정보

저는 한국에서도 교회를 다니던 터라 현지에서도 한인교회를 다녔는데요. *퍼듀한인장로교회*에서 한인 대학생 친구들과 함께 정말 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소중한 인연들을 많이 만들었고, 힘들고 외로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매년 퍼듀 한인 단톡방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검색을 통해 해당 대화방에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대화방에서 정말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VI.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수학 후기를 쓰는 지금 저는 아직 현지 연구실에서 인턴 생활을 하는 중이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완전히 마친다는 것이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지난 7개월을 되돌아보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 출국할 때만 해도 새로운 곳에서의 적응 및 휴식 외에 다른 목표는 아무것도 정해두지 않았었습니다. 현지 생활에 대한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기도 했고, 짧은 시간 문화와 언어도 다른 외국에서 머무는 것이기에 특히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그 사람들 없이는 저의 교환학생 생활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인교회, 연구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온 친구들의 도움으로 저는 너무나도 행복한 7개월을 보냈습니다. 파견 이전 학업에 지쳐있던 저는 이제 다시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얻었으며, 문득 생각날 때 연락할 수 있는 친구들과 되돌아보며 웃을 수 있는

추억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의 대학 생활은 교환학생 없이는 설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길고도 짧은 한 학기 동안 저 자신에 대해 더욱 알아볼 수 있었고, 새로 만난 사람들에게 받은 넘치는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이유로 교환 프로그램 지원을 고민하고 있거나 현지 생활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다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준비해야 할 것도, 필요한 것도 많지만, 후회 없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주신 서울대학교와 항상 친절하게 도와주신 국제협력본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 목차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구성 가능 (파란색 상세 목차는 예시로, 작성자에 따라 변경 가능)**

위의 내용으로 본부 국외파견 교환학생 의무 사항인 수학 후기를 제출합니다.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에서 이를 OIA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 공유 및 학생 안내, 홍보 등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출일자	2025년 8월 8일
지원자* 서명 필수	이 윤 서 